

문화의 '고유성' 통찰한 문화 예언자

오스발트 슈펜글러의 사상과 《서구의 몰락》(전3권)

노명식

전 한림대 교수·서양사학

이 책은 그 원전이 1918년에 출판된 후 여러나라에서 서평이 수없이 많이 나왔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더러 언급된 바 있는 터이기 에 새삼 글을 쓴다는 것이 다소 멋지게 느껴 지지만 우리말 번역책은 이번에 처음 나왔으니, 이를 기리는 뜻에서 이 글을 쓰기로 한 다.

이 책은 출판후 8년 사이에 10만부가 팔 렸다고 한다. 하나의 두툼한 역사철학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린 일은 출판사상 일찍이 없 었던 일이다. 어찌하여 이처럼 폭발적으로 읽혔는가. 학문적 입장에서 볼 때 《서구의 몰락》(박광순 옮김)은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치밀한 분석과 과학적 논리 가 생략된 극단적인 주장이었다. 그리하여 전문학자들은 그 책을 '참 지식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하여 맹렬히 비난하고 학생들에게 읽지 말도록 경고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독자들은 그런 비난 과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치문제를 철학사상의 형태로 이해

직업적인 전문 역사학자들과 비전문적인 아마추어, 학계와 일반독자 사이의 괴리가 이처럼 명백하게 나타난 일도 일찍이 없었 다. 그런데 이 괴리야말로 실은 이 책이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를 말하는 것이다. 당시 전문역사가들이 말한 '참 지식에 이르는 길'이란 19세기 랑케의 고증학과 콩트의 실증 주의사학의 방법이었다. 그러한 연구방법으 로만 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볼 때 슈펜글러의 책은 직관과 독단 위에 세워 진 오류와 결합 투성이었다.

슈펜글러는 대학에서 역사나 철학을 전공 한 사람이 아니고 자연과학과 수학을 전공하 였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도 공직생활이란 고등학교에서 잠시 교편을 잡은 것 뿐이었 다. 그는 역사와 철학에 문외한이었다. 그러 한 그가 현대 역사사상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서구의 몰락》을 착상하게 된 직접 동기는 1911년의 제2차 모로코 사건에서 곧 세계대 전이 일어날 것을 직감하고 이 중대한 역사 적 사건의 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한 데 있었다.

그의 책은 본래 '보수와 자유'라는 표제 의 독일정치에 관한 소책자로 시작했던 것이 데, 독일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짧은 수 십년 사이에 일어난 정치적인 사건만을 실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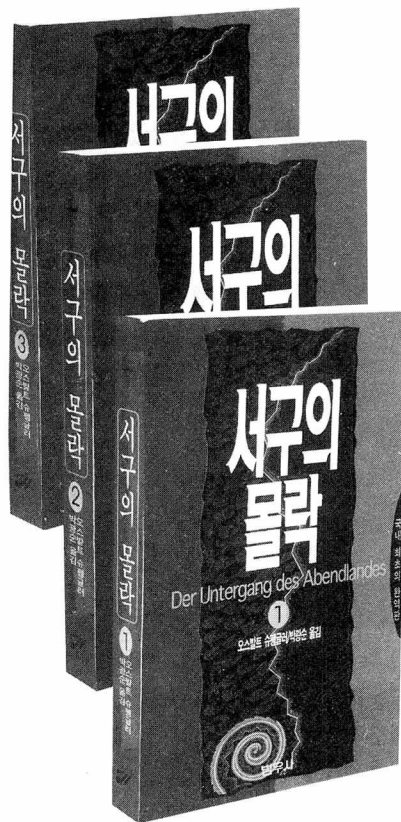
슈펜글러는 《서구의 몰락》에서
지금까지의 서구중심적 발전사관을
부정한다. 발전사관을 부정함으로써
시대구분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모든 문화의 등질성을 배격한다.
서양문화의 우월성을 부정하고
모든 문화에 각각 고유한 가치를
부여한 것은 탁월한 통찰이다. 그는
높은 직관력을 가진
문화의 예언자였던 셈이다.

적인 틀 안에서 고찰하는 방식으로는 안되었 다. 정치문제의 깊은 데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들을 파악해야 하고, 그 파악은 예술적 표현을 통하여 과학사상이나 철학사상의 형 태로밖에는 이해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 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역사의 아무리 작은 단 하나의 사건도 결국 세계사 전체의 비밀 이 밝혀지지 않고는, 즉 구조를 지닌 유기적 통일체로서의 인류 역사를 알아내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 그후 부터 나는 현재 다가오고 있는 세계대전을 전혀 다른 빛으로 보았다. 역사가들은 그것 을 정치적 혹은 사회적 인과관계의 도식에 의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국민의식이나 개 인적 영향이나 경제적 동향에 기인한 우연적 일시적 현상으로 설명하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 세계대전은 일정한 넓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유기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변화의 한 단계의 한 유형 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수백년 전에 예정되어 있었다."

서양 중심의 '발전적 역사관' 부정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유 기체'는 서양의 구미문화를 가리킨 것이고, 그 문화(Kultur)가 이미 수백년 전에 예정 되어 있는 노쇠기에 이르러 죽어가는 과정에 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류역사에는 그 서양문화와 똑같이 일정한 공간적 시간적 넓이를 가지고 있는 유기체적 문화들이 여덟개가 있는데, 그것들 은 모두 똑같이 출생, 성장, 성숙, 노사의 규



칙적인 네 단계를 밟아왔다고 한다. 그러기 에 그 어느 문화도 노쇠기에 이르면 세계대 전과 같은 큰 전란이 일어난다. 그 여덟개의 문화는 이집트, 바빌론, 인도, 중국, 고대(그 리스—로마), 서양, 아랍, 멕시코인데, 이들 은 모두 약 천년의 수명을 지니고 네 단계를 규칙적으로 거처왔다.

네 단계의 병행관계를 생물학적 용어인 상 동(homology)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생 물의 서로 다른 종류들은 그 개체와 개성은 다르지만 그 기관이 비슷하듯이 여덟개의 문 화들도 그 개체와 개성이 다르고 연대기상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생성노사의 단계가 상동하므로 동일한 단계는 동일한 의미를 지 니고 있다.

여기서 연대기상의 의미가 완전히 탈색된 동시대성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피타고라스와 데카르트가 동시대적이고, 이오니아양식과 바로크양식이, 아우구스티누스와 진시황제 가, 한니발전쟁과 세계대전이 각각 동시대적 이다. 종교, 예술, 정치, 경제, 사회생활, 과학에 있어 위대한 창조는 하나도 예외없이 모든 문화에 동시대적으로 나타나서 성장 발 전하다 죽어간다. 그리고 각 문화는 생물의 개체와 같이, 다른 문화와의 상호영향도 없 고 상호공통성도 없이 그 고유한 개체성을 죽을 때까지 고수한다.

그러면 그 문화의 고유성은 어떻게 형성되 는가. 각 문화에는 각기 고유한 원상징

(Prime Symbol)이라는 것이 있어 이것이 그 문화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쳐서 종교, 예 술, 철학, 과학, 사고방식, 행동양식 심지어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그 고유한 특성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각 분야는 철저 히 상호배타적이다. 그 절대적 고유성은 어 느 문화에도 타당한 과학적 진리나 철학적 예술적 보편성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문화는 이질적이고 서로 넘을 수 없는 담으로 가로막혀 있다. 따라서 그 문화들은 상호 불방해의 완전독립된 유기적 개체이다. 슈펜글러의 그러한 문화이론은 문 화의 이식이나 동화를 부정하고 역사의 연속 적 발전을 부정한다. 사실 그의 역사관은 19 세기 발전사관의 부정에서 성립된 것이었다. 발전사관의 부정은 고대—중세—근세의 시대 구분을 부정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대구분 은 발전사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대구분은 서양역사를 가장 앞선 단계로 보고 다른 문화들은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뒤떨어져 있다는 서양 중심 사상에 근거한 것이었고, 그것은 모든 문화의 등질성을 전 체로 한 것이었다.

모든 문화의 등질성

그러나 슈펜글러는 모든 문화의 등질성을 부정하고 서양 중심의 발전사관과 시대구분 을 프톨레마이오스적 역사관이라고 배격하고 자기의 사관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새 발견이 라고 주장한다. 그가 문화의 고유성에 착상 하여 서양문화의 우월성을 부정하고 모든 문 화에 각각 고유한 가치를 부여한 것은 실로 탁월한 통찰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문화의 고유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문화의 상호교류와 상호영향을 부정한 것은 역사적 사 실을 무시한 강변이었다.

미국의 저명한 역사가 H.S. 휴즈는 슈펜글 러를 이렇게 바라본다. 그는 지적능력에 한 계가 있었으나 동시에 사물을 크게 보는 희 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적 능력 의 한계가 오히려 이 희귀한 능력을 발휘하 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슈펜 글러는 높은 직관력을 가진 문화의 예언자이 고, 역사적 운동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운동 을 자극적이고 시사적인 새 연관으로 묶어내 는 무비의 재능을 가진 관찰자였다고 평가하 고 있다.

범우사/A5신/각 490면 내외/각 8000원